

#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 기업유치 최선

### 전북도, '그린수소 수요창출 확대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정책적 지원 · 수요 창출 방안 모색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청정수소 수요창출 확대 방안이 도출돼 전북도의 새만금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그린수소 수요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대 이종희 교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김희수 실장, 전북테크노파크 이송인 단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정수소(그린수소, 블루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수요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청정수소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향후 청정수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그린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수요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수행: 김재경 박사)이 이번 과업을 수행(2020. 12.)했으며, 친환경 청정수소(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활용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전해 방식의 생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해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전해 전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 ▲일반수소 사용발전량과 차등에 상향 지급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분리 별도의 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도입, 이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 ▲수소 공동구매시 청정수소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의무화 추진, 의무구입 대상 청정수소를 인증제와 연계하는 수송용 청정수소 사용 의무화제도 도입 등이 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청정(그린)수소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여타 대응과 수전해 기업유치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정수소 구매 의무화 등이 포함된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 대상으로 적극 홍보 · 지원할 방침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해 청정수소 경제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북이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청와대 기자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1일 오전 폐쇄된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서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전북도,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주 가입 당부

### 어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보험가입 여부 쉽게 확인 가능

전북도가 어선원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의무보험 가입 지도 · 감독을 강화한다.

도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2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이나 승선원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대해 보험 가입 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

해보상보험이다.

3톤 이상 어선소유자는 어선을 등록 ·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연 가입 대상 어선주는 반드시 보험가입 신고 및 제의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승선원 수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3톤 이상 당연 가입 대상 어선이라 면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선 보상 후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선원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선 소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므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어선등록 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톤 이상 어선을 한 번에 찾아내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 가입(제의) 신고 대상 어선이 파악되고, 어선

원보험 가입 선원 수와 실제 승선원 수가 다른 어선도 확인할 수 있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문자와 유선전화 등을 통해 미가입 어선이나 승선원 수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가입 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 등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매월 초 미가입 어선소유자와 어선등록 상황이 변경된 어선소유자에게도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학술지 '전북학연구' 3집 발간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8편 논문 실어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 유일 전북학 전문 학술지인 '전북학연구' 3집을 발간했다.

'전북학연구'는 지난 2019년 창간된 이후, 전북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인물, 문화, 산업, 농촌, 생태, 아카이브 등을 주제로 한 17편의 논문을 게재해 왔다.

이번 호에는 8편의 논문이 실렸으며, 올해부터는 편수를 늘려 연 2회(6, 12월) 출간될 예정이다.

주요논문은 ▲목산 이기경 '동유경실'의 서지적 고찰(이경훈), ▲1793년에 보급한 '호남읍지' 유형과 전라도의 읍지(이재두), ▲선운사 석불비결사건에 대한 종교사적 검토(한승훈),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전북출신 독립운동가 연구(김주용), ▲전북지역 3·1운동 행적기록물의 온라인 전시 방안 연구(홍석천), ▲전북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현진), ▲고 백남운 선생의 '호남우도농악' 기록보 필사본을 중심으로 본 전북지역 호남우도 채산소고놀이음의 전승 양상과 특징(허정주), ▲육정호 수환경 인지에 의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특성 연구(문예은)이다.

이번 3집에는 전북 관련 종교, 독립운동가, 농악 뿐 아니라 문헌과 이를 활용한 전시방안까지 8편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전북학 학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 유일 전북학 전문 학술지인 '전북학연구' 3집을 발간했다.

술연구지원사업', '전북학 우수학위 논문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며, 선발된 이들의 연구결과물은 '전북학연구'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북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학연구를 통해 학문적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으며 전북학 연구에 대한 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에 신진연구자가 발굴되는 등 투고자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술지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학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 학술적 · 실용적인 연구가 이뤄져 전북만의 고유 자산과 도정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산업단지 사업장 지도 · 점검

전북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폭발 · 누출 및 질식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산업단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5개 산업단지 348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와 관할 소방서, 산업안전협회, 산업단지 재난안전예찰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점검과 예찰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유

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의 저장보관상태, 사업장 시설관리 등 사업장 안전관리 분야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 다.

도는 폭발 등 기온상승으로 인한 유해물질 관리분야와 화재 · 질식사 및 폭염 등 여름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유해요소의 개선을 유도해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서 대통령 표창

전북도가 지난 9일 제10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이해 보건복지부 주관 기념행사에서 김제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은 김제시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중 6곳이 선정됐다.

김제시는 ▲저출산 대응 민 · 관 협의체 구성 ▲금융기관 사회공헌사업(출생축하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및 1 읍면동 1 출산친화 · 전입장려 시책 추진 ▲임산부 · 다자녀가족 할인 가맹점 운영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 ▲인구의 날 한마당 개최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6년 여성친화도시 최우수 표창(국무총리) 선정 및 2019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저출산 대응 분야)에 선정되는 등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천선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제10회 '인구의 날' 표창 수상을 통해 전북내 지자체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와 인신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미래 전북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